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3.1.19.(목) 10:30. 전하규 대변인(국방부)

1월 1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차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내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기간 중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긴급구조와 응급진료를 위한 지워태세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로, 김승겸 합참의장은 오늘 오후에 설 명절을 앞두고 해외파병부대장들과 화상전화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는 해외파병부대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미 국방장관이 JSA 방문한다는 보도 나왔는데요. 이거 시점 은 그러면 방한 후 첫 일정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경고 메시지 같은 거 낼 예정도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번에 비슷한 질문에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은 현재 양국 국방부 간에 협의 중인 사안입니다.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금 더 계획이 구체화되면 그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골문> 저희 국방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북한 회의한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국방비가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그런 군사 분야에 대한 어떤 강조를 다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지를 보여 주는 거라고 평가하시는지, 현재 우리 국방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조금 더 분석·평가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요. 제가 즉답을 지금 현시점에서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합참에 드리겠는데요. 성주 사드기지에 접근한 민간 상용드론 추정한 비행체 수색작전을 사흘째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것을 그래서 수색 범위를 좀 넓힌다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찾고 이제 그만 찾겠다든지, 아무튼 이런 경과라든지 그리고 추락한 거면 왜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건지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하나 질문은 오늘 미국 매체에 나온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

니다. 작년 11월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기사 중에는 이런 부분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이 보유한 포탄 일부를 11월 초에 이미 선적을 해서 보냈다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론 미군이 보유한 무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한미군 전력인데 그런 전력의 유출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협의라든지, 내용 공유 정도는 됐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는지 그것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먼저 합참에 질문하셨으니까 혹시 답변할 수 있으시면...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한미 장병과 경찰 220여 명이 현재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대공혐의점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시·도합조팀이 추가 평가 중입니다.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주한미군 전투력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안을 포함해서 한미가 대비태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또 협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오늘 주한미군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 방어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이행하는 주한미군의 작전과 능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주한미군 측에서 강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문> 다름이 아니고 동아일보에 보니까 전비태세 검열보고서가 거의 나올 때가 됐다, 완성됐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지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보고가 누락됐다든지 전방과수방사와의 연결이 잘 안 됐다든가 이런, 이미 지적된 바가 있는데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 대해서 어떤 문책이 있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전비검열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끝>